

이라크의 최근 정세, 주요 경제정책 및 시사점

손성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shson@kiep.go.kr, Tel: 3460-1266)

차 례 ●●●

1. 최근 정세
2. 주요 경제정책
3. 시사점

주요 내용 ●●●

- ▶ 이라크의 현 누리 알-말리키(Nouri al-Maliki)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종 · 정파 간의 갈등 심화, 대외적으로는 인접 중동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설정 문제에 직면함.
 - 순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및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내부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연결하는 이른바 ‘시아 초승달 연대(Shiite Crescent)’가 약화되고 있으며 터키와는 정치 및 석유 관련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 이라크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이라크는 석유수출 증가로 2012년에 8%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라크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밀월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증가하면서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관계는 이전보다 악화되는 추세임.
- ▶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는 △ 석유산업 투자확대 △ 이란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 △ 자국 내 터키의 경제적 영향력 제한 같은 이라크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를 야기함.
 - 외국인투자 유입 저조로 이라크 정부는 석유 생산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라크는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인도 및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란과는 시아 연대 강화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증대하는 한편 자국 내 터키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함.
- ▶ 이라크는 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교역, 석유부문 및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는 석유부문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교역 및 투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터키와는 정치 및 석유 관련 문제들로 갈등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이라크 투자에 기회로 작용함.

1. 최근 정세

가. 정치

■ 최근 이라크에서는 시아파(Shia)와 순니파(Sunni)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음.¹⁾

- 2003년 이라크전(戰) 이후 치안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 누리 알-말리키(Nouri al-Maliki) 정부의 친시아파적 성향과 순니파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인해 종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2012년 12월 순니파인 라피 알-이사위(Rafi al-Isawi) 재무장관의 경호원 10명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자 순니파는 이 사건이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항의를 지속함.
- 최근의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극단주의 성향의 단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력사용 및 폭탄 테러 등의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여 치안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라크 내 연간 민간인 사상자 수는 2010년 4,070명까지 감소한 후 2012년 4,500여 명에 달하며 증가세로 돌아섬.²⁾³⁾

■ 2013년 예산안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에 배정된 예산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순니파 및 시아파 의원들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면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짐.⁴⁾

- 2013년 전체 예산의 17%인 23조 디나르(201억 달러)가 쿠르드 자치정부에 할당되었음.
- 그러나 순니파 및 시아파 의원들은 쿠르드 정부가 생산된 원유를 터키에 직접 수출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악화시킨 점을 문제삼아 쿠르드 자치정부에 예산의 12%이상을 배정할 수 없다며 예산안 수정을 요구함.
- 쿠르드 자치정부는 2012년에 중앙정부로의 원유 수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엑손모빌(ExxonMobil)을 비롯한 국제석유기업과 독자적인 유전 개발 및 원유생산 계약을 체결함.
- 예산안 통과에 대한 쿠르드계 의원들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의회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지역 내 석유를 생산하는 국제석유기업에 대한 대금지불을 위해 요구한 35억 달러 중 6억 4,300만 달러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2013년 3월 8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마찰이 예상됨.⁵⁾

1) 이슬람에서 순니파는 초대 칼리파(khalifa, 후계자)인 아부바크르(Abu Bakr)를, 시아파는 4대 칼리파인 알리(Ali)를 각각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두 개 종파로 나뉘게 됨. 이라크 인구 중 시아파가 60~65%, 순니파가 32~37%를 차지함. 그러나 순니파인 사담 후세인이 23년간 이라크를 통치하면서 인구의 과반수인 시아파에 대한 차별정책을 펼쳐 시아파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됨.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시아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양 종파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2) 그러나 이라크 전후 정부 구성 과정(2006~07년)에서 발생한 높은 수준의 불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EIU(2013), *Country Report: Iraq*, p. 19. (January)

4) 쿠르드족은 시리아, 터키, 이란 및 이라크에 분포해 있으며, 이 중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라크 인구의 17%를 차지함.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자치정부를 수립한 뒤 지역 내에 민병대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유전을 생산 및 수출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음.

5) MEEs(2013), "Iraqi Parliament Snubs Kurds To Pass 2013 Budget," *Weekly Energy, Economic & Geopolitical Outlook*, Vol. 56, No. 10, p. 5.

- 한편 시리아 아사드(Assad) 정권의 약화, 미국 및 유럽의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연결되는 '시아 초승달 연대'가 약화됨.⁶⁾
 -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약화는 시아 초승달 연대를 위협하고 있어 이라크와 이란이 직간접 지원에 나서고 있음.⁷⁾
 -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시아 연대의 중심축인 이란의 경제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라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임.
- 터키는 하세미(Hashemi) 이라크 부통령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원유를 직수입하여 이라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음.
 - 터키는 테러 혐의로 다섯 차례 사형을 언도받은 하세미 부통령을 2012년 4월부터 자국 내에 보호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의 부통령 인도 요청을 거부함.
 -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국 내 모든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터키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에너지 관련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o 쿠르드 정부는 자치지역 내의 키르쿠크(Kirkuk) 유전 및 가스전 개발권을 터키에 이양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혀 이라크 중앙정부와 터키 간 추가적인 마찰이 예상됨.

나. 경제

- 이라크는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로 2009년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재정위기 및 신흥국의 경제침체로 인한 세계 원유수요 감소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7.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이라크 고성장의 동력은 원유 수출로, 2012년 평균 원유 생산량은 일일 298만 배럴이었으며 2013년에도 300만 배럴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표 1 참고).
 - 2013년에도 석유 생산 및 수출을 바탕으로 8%대의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며, 이에 따라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6) 시아 초승달 연대는 시아파의 인구비율이 높거나 시아파가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위로 볼록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 국가들 간 정치적 협력이 나타나고 있음.

7) Peel, Michael(2012), "Sanctions hit home as Syrians face winter," *Financial Times*. (October 8)

표 1. 이라크 경제지표 추이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백만 달러)	111,660	135,488	180,607	206,961	229,726
실질 GDP 성장률(%)	4.5	5.5	8.2	8.5	8.2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4	5.6	6.1	6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43,249	48,606	58,958	65,262	68,676
원유 생산량(백만 b/d)	242	240	265	298	303

주: 1) 원유 생산량을 제외한 경제지표에서 2011년 자료까지는 실질, 2012년도는 추정, 2013년도는 예측치임.

2) 2013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1월 평균 기준.

자료: EIU(2012), *Country Report: Iraq*, (March); OPEC(2013), *Monthly Oil Market Report*, (March)

■ 이라크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2010년 국가개발계획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며 2012년에는 종 · 정파 간 갈등에 따른 치안불안으로 소폭 감소함.

- 이라크는 2010년에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0~14년)을 수립하고 민간 및 외국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46%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외국인투자가 기대 이하에 머물면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⁸⁾
- 2011년 370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였던 이라크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2012년에 35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함.⁹⁾
- o 이라크의 외국인투자 감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이 농업, 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 계획을 밝혔으나 이라크의 치안불안 및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투자를 연기한 데서 비롯됨.

■ 미군의 철군 이후 이라크와 미국의 경제관계는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고 있음.

- 미군이 2011년 12월 철군하면서 이라크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됨.
- 이라크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의 경우 북미 및 유럽 수출은 감소하고 아시아 수출은 2008년에 32%에서 2011년에 52%로 증가하였음(그림 1 참고).
- 미국의 전체 석유 수입 비중에서 이라크에서 수입하는 비중 및 절대 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의 대이라크 석유의존도 또한 낮아지는 추세임(그림 2 참고).

8) 이라크에서 투자주체는 주로 정부이며 민간 부문이 발달하지 못해 외국인투자가 이라크의 산업발전에 절실한 상황임.

9) AMO info(2012), "Iraq expects decline in foreign investment in 2013." (October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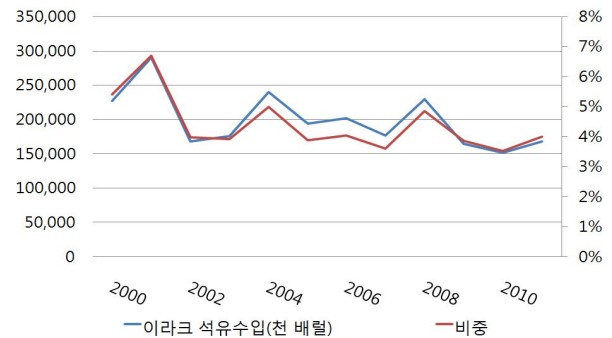
그림 1. 이라크 주요 석유수출 지역 변화



주: 수출 비중은 원유 수출량 기준.

자료: OECD/IEA(2012), *World Energy Outlook*, p. 397.

그림 2. 미국의 대이라크 석유수입 추이



주: 비중은 미국의 전체 석유 수입 대비 이라크로부터 수입한 석유임.

자료: EIA, Petroleum & Other Liquids data, (Accessed 2012. 3. 14)

- 미국의 석유생산량 증가, 셰일가스 생산 및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도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o 오바마 정부는 자국 내 원유 생산을 증가시키고 셰일 가스 및 오일 같은 비전통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중동 및 대외 석유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미국의 원유생산은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는 일일 700만 배럴을 생산하여 199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¹⁰⁾

2. 주요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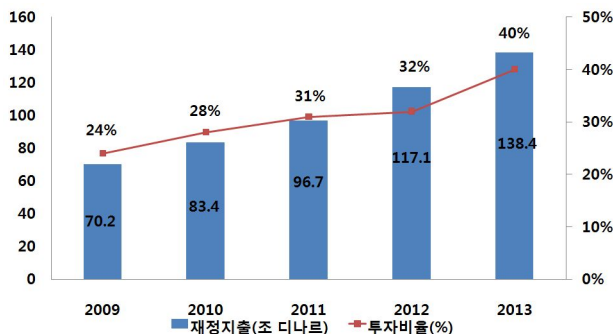
가. 예산 배분

- 석유 수출로 발생한 이라크의 막대한 정부수입은 석유 부문에 대한 재투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연결됨.
- 이라크는 GDP의 72%, 재정수입의 99%(2011년 기준)를 석유 수출로 얻고 있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석유수출량을 기반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민생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임.¹¹⁾
- 이라크는 2017년까지 하루 9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국제석유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석유 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정부예산은 총 138조 디나르(1,183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그림 3 참고).
- o 이라크의 2013년도 예산 중 투자 경비는 55조 디나르(471억 달러)로 총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그림 4 참고).

10) EIA(2013), “U.S. crude oil production tops 7 million barrels per day, highest since December 1992.” (Februar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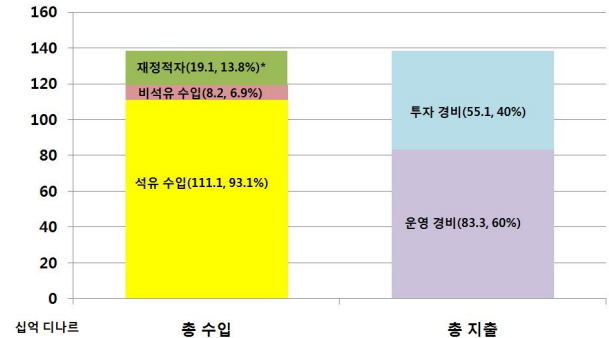
11) OECD/IEA(2012), *World Energy Outlook*, p. 390.

그림 3. 이라크 재정지출 및 투자비율 추이



자료: Inter-Agency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2013), "Iraq Budget 2013 Background Paper," p. 3.

그림 4. 2013년 이라크 정부예산



주: 재정적자 비율은 총 지출대비임.

자료: Inter-Agency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2013), "Iraq Budget 2013 Background Paper," p. 3.

■ 이라크 정부는 자국 내 외국인투자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석유 생산 및 수출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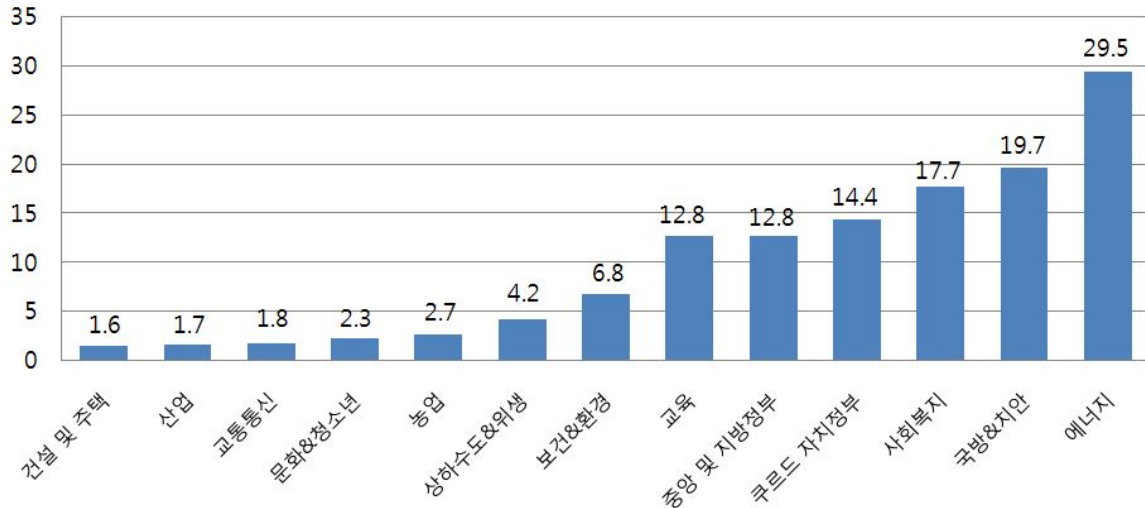
- 2013년도 예산안에서 석유 및 가스, 전력 같은 에너지 부문에만 총예산의 21%인 29조 5,000억 디나르가 할당되어 노후화된 원유 생산시설 교체 및 신규 유전개발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o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석유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운송, 저장, 수출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시설 보수 및 교체가 절실한 상황임.

■ 이라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비석유 부문 및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택, 위생 등의 부문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

- 2013년 예산 중 산업, 교통 및 통신, 농업 등의 비석유 부문에 대한 비중은 전체 예산의 4.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그림 5 참고).
- o 이는 2013년에 산업개발보다 석유 생산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정책을 수립한 것을 반영함.
-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전 발발 10년이 지나면서 국가재건에서 산업발전으로 전향하기 위한 국가개발계획(2010~14년)을 2010년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o 이라크 전체 인구 중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12%이며, 문맹률은 23%, 고등교육 등록률이 49%에 그치는 등 절대적 빈곤율은 높은 반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규모는 미미함.

그림 5. 2013년 이라크 정부 예산 세부내역

(단위: 조 디나르)



자료: Inter-Agency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2013), "Iraq Budget 2013 Background Paper," p. 4 참고.

나. 대외경제정책

■ 미군의 철군 이후 이라크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대외경제관계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꾀하고 있음.

- 미국은 현재까지 이라크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이라크 전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31.3%에서 2011년 17.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임(표 2 참고).
- 이라크는 교역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국 내 투자확대를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이라크 재건사업과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함.
- 이에 우리나라는 기술을 전수하고 이라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9일에 전략적 투자협정을 체결함.¹²⁾
- 현 말리키 정부는 친미적 성향이 강해 정치적으로 미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관계에서는 변화가 예상됨.
-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 우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라크도 미국의 정책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관계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12) 본 협정은 이라크의 NIC(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와 코트라(KOTRA)가 2013년 1월 9일에 체결한 것으로 투자 및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함.

표 2. 이라크의 국가별 교역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06년		2011년		2012(1~8월)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31.3	미국	17.2	미국	15.9
2	시리아	10.6	인도	15.6	인도	15.7
3	인도	9.8	중국	12.8	중국	13.8
4	터키	7.8	한국	9.3	터키	9.5
5	이탈리아	6.7	터키	8.6	한국	9.0
6	캐나다	4.0	시리아	7.1	시리아	6.7
7	스페인	3.7	네덜란드	3.2	이탈리아	3.2
8	일본	2.8	이탈리아	3.1	네덜란드	3.1
9	중국	2.8	캐나다	2.5	캐나다	3.1
10	프랑스	2.5	스페인	2.5	스페인	3.0
총 교역금액	40,726	82.0	107,120	82.0	79,832	83.1

주: 1) 국가별 비중은 수출입의 합계금액을 총 교역금액으로 나눈 값임.

2) 총 교역금액은 당해 이라크 수출입의 합이며, 총 교역금액의 비중은 10대 교역국가의 교역금액 합을 총 교역금액으로 나눈 값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접속일: 2013. 3. 20)

■ 이라크 정부는 미국 및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자국의 석유개발 사업에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를 독려함.¹³⁾

-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기업이 직접 석유 개발 및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쿠르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석유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입찰 참여도 제한함.
- 하지만 미국 및 영국계 국제석유기업들은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석유개발 계약이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계약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일부 기업들은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계약을 여전히 체결하고 있음.
- o 이라크 남부의 서부 쿠르나(West Qurna) 1 유전 개발권을 가진 엑손모빌은 막대한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인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해당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음.¹⁴⁾
- o 미국의 엑손모빌, 쉘브론(Chevron), 프랑스의 토탈(Total) 등 국제 석유기업들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직접 유전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쿠르드 지역에 지속적인 진출을 시도함.
- 이라크 석유부는 2012년 11월 러시아의 루크오일(Lukoil), 중국의 CNPC 관계자들과 회동을 통해 양국의 대이라크 석유개발 참여를 독려했으며, 루크오일과 CNPC 또한 이라크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¹⁵⁾
- 특히 루크오일은 이라크의 초대형 유전 중 하나인 서부 쿠르나 2 석유전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라크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 이라크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 석유기업의 자국 내 석유개발 참여 확대를 활용하여 석유 부문에서 미국 및 영국계 국제석유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들의 독주를 저지하고자 함.

13) EIU(2013), *Country Report: Iraq*, p. 4. (February)

14) 엑손모빌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채산성을 이유로 서부 쿠르나 석유전 지분의 60%(500억 달러)를 CNPC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15) EIU(2012), *Country Report: Iraq*, pp. 17-19. (December)

■ 한편 이라크는 ‘시아 초승달 연대’ 강화 차원에서 이란과 각종 협정을 체결하고 투자 및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있음.

- 2003년 전쟁 이후 이라크는 이란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란 역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할 방안으로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라크도 시아 연대강화 차원에서 이란과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o 이란은 2012년 말 이라크 내에서 지하철, 화물운송용 철도 및 제강시설 건설을 위한 협정을 이라크와 체결하고, 2013년 1월 20일에는 양자간 무역관계 강화 및 협력증대를 위해 이라크 국경에 인접한 이란의 아르반드(Arvand)와 이라크의 주바이르(Zubair) 자유무역지대 간 투자협정도 체결함.¹⁶⁾
- o 또한 이란은 이라크의 2개 발전소에 연간 2,500만m³의 가스를 지원하고,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짐.¹⁷⁾
- 최근 이란은 도로, 발전시설 건설 등 비석유 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반면 터키가 하세미 이라크 부통령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인 석유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국 내 터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함.

- 터키는 이라크 내 도로 및 주택 등 이라크 건설 시장의 50%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터키의 2대 수출시장으로 교역 및 투자 부문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¹⁸⁾
- 터키는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유조차량으로 수입, 정제하여 쿠르드에 재수출하고 있으며 쿠르드 정부는 향후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이를 이라크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터키의 행보는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는 자국 내에서 터키의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고자 함.
- o 2012년 5월 터키의 국영 석유기업인 TPAO는 이라크의 바스라 지역 9블록에 대한 유전개발권을 획득했으나 같은 해 11월 이라크 석유장관인 압둘 메흐디 알-아미디(Abdul Mehdi al-Amidi)가 TPAO를 유전탐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¹⁹⁾
- o 또한 이라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신규 프로젝트에 터키의 입찰을 배제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는 터키 기업의 지사 설립 등록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함.

16) IRNA(2013), "Iran, Iraq free zones sign letter of agreement." (January 20)

17) al Arabiya(2013), "Iraq green lights gas pipeline deal with Iran, Syria." (February 20)

18) Dombey, Daniel(2013), "Turkey emerges as true Iraq war victor." *Financial Times*. (March 12)

19) AFP(2012), "Iraq expels Turkish firm from oil exploration deal." (November 7)

3. 시사점

■ 이라크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건산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는 향후 5년(2013~17년)간 9~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750억 달러를 에너지, 전력, 교통,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²⁰⁾
- 이라크는 석유부문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교역 및 투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터키와도 정치 및 석유 관련 문제들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투자에 기회로 작용함.
- o 이라크 말리키 총리는 올해 4월 1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한-이라크 경제협력포럼’에 직접 참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였음.²¹⁾
- o 또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 프로젝트 비용의 80%는 정부 재정, 20%는 투자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밝혀 자금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함.²²⁾
- 치안이 안정되고 많은 사업기회가 생기면서 타 국가들이 이라크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라크 시장선점을 위해 더욱 본격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o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이라크의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는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이라크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 한류 및 개발협력을 통한 다각적 관계 확대 △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우리나라 기업간 과열경쟁 중재 △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라크에서도 불고 있는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협력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이라크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부처들은 이라크 정부와의 접점을 찾고 활발한 인적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함.
- o 이라크도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중동 지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간 과열경쟁으로 건설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사례들을 교훈삼아 이라크에서 프로젝트 입찰 시 정부 차원의 중재안 마련이 요구됨.

20) 황의태, 정영화, 박정현(2013),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Global Market Report 13-015, p. 6, KOTRA.

21) 말리키 총리가 이러한 종류의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집트 정부가 주최한 행사가 유일하며, 본 협력포럼 참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유현민(2013), 「이라크 말리키 총리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연합뉴스. (4월 5일)

22) 유현민(2013), 「이라크 말리키 총리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연합뉴스. (4월 5일)

- 이라크 진출 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및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수주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이라크의 재건사업 진출기회를 잡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석유 및 전력 부문,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도시개발, 의료보건 및 IT 등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이를 파악하고 진출 사업과 시기를 결정해야 함.

- 2013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건설 및 주택, 산업, 교통 및 통신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 않으나 치안이 안정화되면서 정부 투자 및 PPP 방식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o 2013년 예산안에 에너지 위주로 막대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 유지보수,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진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o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 분야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 도시개발, 의료 서비스 및 전자정부 구축 등에 대한 사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됨.

- 이라크와의 경제관계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개발협력 및 사회개발 지원을 통해 진정한 협력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전략이 요구됨.
- o 특히 이라크에서 지원이 필요한 병원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무상지원 및 사회적 투자를 통해 협력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KIEP**